

코멘트

- 미국 증시는 유가 및 금리 상승 부담에 하락. 경기민감주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지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S&P 500 -0.4%, NASDAQ -0.1%, Russell 2000 -2.1%
- WTI가 어느새 90\$/bbl을 목전에 두고 있음. 사우디가 현재 감산량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가 급등. 다행히 이전 언급한 것처럼 감산 양을 늘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생산량도 수년 래 최저치인 900만배럴 수준이고, 수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유가 추가 상승
- 유가 상승에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 섹터는 0.5% 상승했지만 유가의 단기 급등이 제품 마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재 섹터는 1.9% 하락. 게다가 아시아 장에서 중국 증시도 재차 하락하며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유가 상승이 곧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듯. 필수소비재 등 상대적으로 마진이 박하고 유가 상승의 긍정적인 수혜를 보지 못하는 업종도 0.9% 하락
- 미국 금리는 재차 상승. 유가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단기 금리가 올랐고 장기 금리도 이 이유와 더불어 수급 부담도 커지면서 상승. 9월 중순 있을 fomc 전에 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행태 때문. 수십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이 밀려오며 국제 수요가 약해짐. 미국 국제 10년 금리는 4.3%에 다시 근접해 가는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섹터는 상승. 애플이 아이폰 발표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상승. 대부분 대형 IT주를 포함 수준 나타났음

- 미국 금리 상승, 유럽 경기 둔화(전일 발표된 유럽 서비스업 PMI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 특히 프랑스) 때문에 달러 크게 상승. 달러지수는 104.8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금리 상승의 망령>>

- 금리가 오를만 하면 오르는 일이 하반기에는 빈번할 듯. 국제 공급, 특히 중장기물 발행이 늘어남은 부담도 상존하고 (순발행은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규모가 큼) 어제는 회사채 발행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국제 발행 부담에 금리가 상당 압력 받을 수록 기업들 역시 자금 금리가 담장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우려에 회사채 발행을 서두를 수 있음

- 펀더멘탈 개선 폭이 더 크다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할 3분기 실적 시즌이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주식: 국가별 등락률 (%)

지역	국가	지수명	증가 (pt)	1D	1W	1M	3M	YTD
선진	미국	S&P 500	4,496.8	(0.4)	(0.0)	0.4	5.4	17.1
		NASDAQ	14,021.0	(0.1)	0.6	0.9	7.0	34.0
		다우	34,642.0	(0.6)	(0.6)	(1.2)	2.9	4.5
		Russell 2000	1,880.5	(2.1)	(0.8)	(3.9)	(0.4)	6.8
	유로존	Stoxx 50	4,269.2	(0.3)	(1.3)	(1.5)	(0.5)	12.5
	독일	DAX 30	15,771.7	(0.3)	(1.0)	(1.1)	(1.2)	13.3
	프랑스	CAC 40	7,254.7	(0.3)	(1.6)	(0.8)	0.7	12.1
	이탈리아	FTSE MIB	28,652.2	0.0	(0.8)	0.2	5.9	20.9
	스페인	IBEX 35	9,392.0	(0.3)	(2.0)	0.3	0.3	14.1
	영국	FTSE 100	7,437.9	(0.2)	(0.4)	(1.7)	(2.4)	(0.2)
신흥	일본	Nikkei 225	33,036.8	0.3	2.5	2.6	3.5	26.6
		호주	ASX 200	7,314.3	(0.1)	1.4	(0.2)	2.8
	홍콩	항셍	18,456.9	(2.1)	(0.1)	(5.5)	(4.1)	(6.7)
	중국	상해종합	3,154.4	(0.7)	0.6	(4.1)	(1.4)	2.1
		선전종합	1,970.1	(0.6)	0.9	(4.9)	(1.3)	(0.3)
	한국	KOSPI	2,582.2	(0.1)	1.2	(0.8)	(1.3)	15.5
		KOSDAQ	921.5	0.3	0.6	0.3	4.6	35.7
	대만	가권	16,791.6	0.0	1.0	(0.3)	(0.8)	19.2
	인도	SENSEX	65,780.3	0.2	1.1	0.1	4.2	8.1
	베트남	VN	1,235.0	-	2.5	0.7	11.3	22.6
태국	SET	1,547.9	(0.1)	(1.3)	1.1	1.0	(7.2)	
필리핀	PCOMP	6,225.0	0.2	0.0	(3.5)	(5.2)	(5.2)	
인도네시아	IDX	6,991.7	(0.1)	0.5	2.0	5.6	2.1	
터키	BIST 100	8,236.1	1.2	4.2	11.3	48.1	49.5	
폴란드	WIG 20	2,006.3	(1.0)	(1.8)	(7.5)	(1.5)	12.0	
러시아	MOEX Russia	3,264.4	(0.1)	1.7	5.6	21.1	51.5	
멕시코	IPC	52,932.5	(0.2)	(2.4)	(2.0)	(2.5)	9.2	
브라질	BOVESPA	117,331.3	(0.4)	(0.9)	(1.8)	1.6	6.9	

주식: 한국 & 미국 업종별 등락률 (%)

업종	1D	1W	1M	3M	YTD
반도체	(0.5)	4.8	2.8	1.6	33.1
IT하드웨어	1.8	2.9	0.2	0.3	21.2
IT가전	0.8	1.0	(2.6)	(15.1)	12.5
디스플레이	(0.2)	1.5	(2.0)	(16.9)	15.3
자동차	(0.4)	0.1	(1.2)	(1.9)	23.7
에너지	(1.1)	1.0	(7.1)	(12.2)	(0.1)
화학	1.2	2.7	(6.2)	(7.8)	22.6
비철금속	0.3	2.1	2.1	9.2	12.5
철강	1.0	2.9	0.4	40.3	90.0
건설	(1.1)	(1.1)	(0.9)	(0.9)	11.9
기계	(0.5)	(1.3)	(1.1)	1.8	24.8
조선	(1.8)	(5.5)	(8.1)	16.6	46.2
상사, 자본재	(0.1)	1.0	0.2	1.3	7.9
운송	(0.8)	(1.7)	(3.5)	(5.0)	(6.3)
은행	(0.3)	1.5	0.9	1.8	4.2
증권	(0.9)	0.1	2.2	3.4	15.6
보험	0.0	(1.6)	0.2	1.1	10.5
소매(유통)	(0.3)	(0.3)	4.2	(0.3)	(11.4)
화장품, 의류	(0.4)	1.5	4.4	0.9	(9.3)
호텔, 레저	(0.7)	(1.3)	4.3	(9.5)	(21.6)
미디어, 교육	0.0	(0.7)	(6.1)	(8.6)	5.9
소프트웨어	(0.1)	(0.8)	(4.4)	(5.4)	0.2
건강관리	0.2	(2.2)	(5.2)	(7.2)	(7.2)
필수소비재	0.2	(0.4)	3.7	(1.5)	(6.5)
통신	(0.1)	(0.9)	4.2	(0.9)	(2.1)
유틸리티	(0.5)	(2.3)	(6.5)	(7.1)	(23.4)
Real Estate	(0.9)	(1.4)	(1.3)	(2.3)	(1.2)

* KOSPI WIG26에 맞춰 S&P 500 지수 GICS 1-3 level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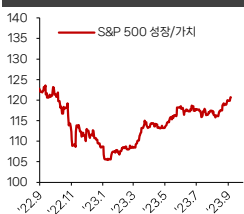
주식: 국가별 스타일 지수 등락률 (%)

국가	스타일	지수명	1D	1W	1M	3M	YTD
미국	Size	대형 S&P 500 Large-cap	(0.4)	(0.0)	0.4	5.4	17.1
		중형 S&P 400 Mid-cap	(2.3)	(1.1)	(2.7)	1.6	7.3
		소형 S&P 600 Small-cap	(2.9)	(1.6)	(4.4)	(0.9)	4.5
	그 외	가치 S&P Value	(0.1)	0.5	2.3	7.5	23.4
		성장 S&P Growth	(0.8)	(0.5)	(1.4)	3.7	11.1
		로우볼 S&P Low Vol.	-	(2.1)	(2.7)	(1.9)	(5.5)
		고배당 S&P High Div.	-	(1.2)	(2.9)	(1.0)	(6.8)
유럽	그 외	가치 MSCI Europe V	(0.3)	(1.1)	(1.0)	0.7	8.9
		성장 MSCI Europe V	(0.3)	(1.0)	(0.6)	(2.3)	11.1
일본	그 외	가치 MSCI Japan V	-	2.4	2.6	7.3	16.8
		성장 MSCI Japan G	0.3	2.2	1.6	0.5	22.4
신흥	그 외	가치 MSCI EM V	(0.7)	(0.4)	(1.8)	1.9	10.1
		성장 MSCI EM G	(0.4)	(1.0)	(3.2)	2.4	6.1
한국	Size	대형 KOSPI 대형	(0.1)	1.5	(0.7)	(1.6)	16.8
		중형 KOSPI 중형	(0.1)	(0.6)	(2.0)	0.8	7.4
		소형 KOSPI 소형	(0.1)	(0.3)	0.4	(0.3)	14.5
	그 외	가치 WMI 500 손수가치	(0.2)	0.6	0.3	1.7	12.1
		성장 WMI 500 손수성장	0.3	(0.5)	(4.0)	(1.2)	22.0
		로우볼 WISE 로우볼	(0.3)	(0.2)	1.6	0.7	0.1
		고배당 KOSPI 고배당	(0.4)	0.2	1.4	(1.9)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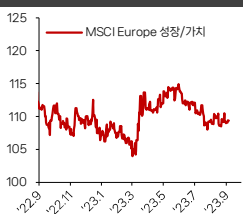
* S&P 600 Small-cap, S&P 500 Value/Growth/LowVol/HighDiv, MSCI Europe Value/Growth, MSCI EM Value/Growth는 관련 ETF로 계산

주식 key ch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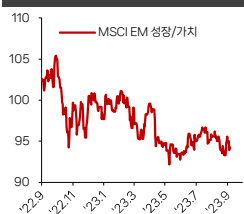
추가지수: 미국 성장 vs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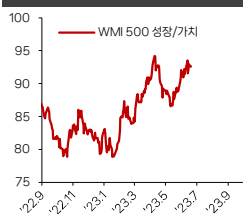
추가지수: 유럽 성장 vs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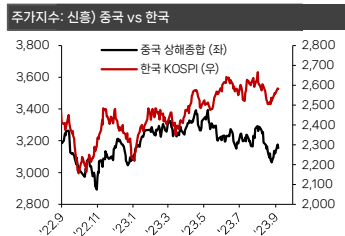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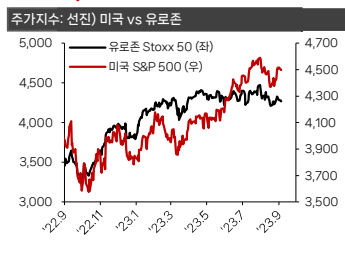
추가지수: 신흥 성장 vs 가치



추가지수: 한국 성장 vs 가치



주식 key chart 1



[illegible]

사우디·리, 하루 130만배럴 감산 '연장'...유가 올레 첫 90달러 돌파
 유력 자동차기업 중국 전기차 대용책 골몰
 화웨이 스마트폰 감작 공개...미국 규제 실패" 들뜬 중국
 中, 반도체 자립에 박차...55조원 대규모 국영펀드 준비
 시진핑,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에 "고난 견뎌라"
 차 없으면 생활 힘든 美 서 차보험료 급등에 무보험 운전자 증가

구분	지역	국가		증가	1D	1W	1M	3M	YTD
국제 2년 (%)	선진	미국		4.96	8.1	6.6	19.6	40.3	53.4
		캐나다		4.66	10.8	2.2	8.2	8.1	60.7
		독일		3.05	2.2	0.2	3.1	10.7	28.1
		프랑스		3.36	6.4	3.9	5.7	22.6	45.3
		이탈리아		3.71	(2.0)	2.5	4.3	9.7	39.9
		스페인		3.49	3.5	6.5	6.3	26.3	56.0
		영국		5.27	6.5	2.5	35.1	69.9	169.5
		일본		0.02	(0.2)	0.7	(0.9)	7.7	(2.0)
		호주		3.84	(0.2)	(4.5)	(8.5)	(4.7)	43.6
	신흥	중국		2.15	(0.8)	0.0	6.7	6.3	-
		한국 (3년)		3.77	3.3	2.5	2.8	28.8	4.0
		인도		7.13	1.5	1.1	-	28.8	17.5
		폴란드		5.34	0.6	1.6	(9.7)	(61.0)	(138.1)
국제 10년 (%)	선진	미국		4.26	8.1	14.0	22.6	46.5	38.5
		캐나다		3.69	13.0	9.9	14.5	25.2	39.3
		독일		2.61	3.3	10.2	5.1	15.7	4.5
		프랑스		3.14	3.7	10.9	4.5	12.7	2.2
		이탈리아		4.34	5.0	18.9	12.8	5.7	(37.5)
		스페인		3.66	4.4	13.3	6.6	18.5	(0.5)
		영국		4.53	6.2	10.3	14.5	27.4	85.3
		일본		0.66	1.4	0.5	0.9	23.1	23.6
		호주		4.14	4.5	3.6	(5.9)	30.8	8.5
	신흥	중국		2.64	(0.9)	5.2	(1.6)	(6.3)	(19.7)
		한국		3.89	3.2	4.2	1.3	36.5	15.2
		인도		7.21	0.2	2.1	1.8	22.6	(12.1)
		폴란드		5.57	(3.0)	(10.1)	0.3	(39.7)	(129.0)
장단기 금리차 (bp)		미국 10Y-2Y		-70.0	(0.0)	7.5	3.0	6.1	(14.9)
		미국 10Y-3M		-115.3	7.7	16.1	20.9	32.4	(68.5)
		독일 10Y-2Y		-43.5	1.1	10.0	2.0	5.0	(23.6)
		한국 10Y-3Y		12.2	(0.1)	1.7	(1.5)	7.7	11.2

국가	국가	환율 증가	1D	1W	1M	3M	YTD
선진	미국 달러지수	104.8	0.5	1.2	2.7	0.7	1.2
(/ \$)	캐나다 달러	1.4	(0.4)	(0.7)	(1.9)	(2.0)	(0.6)
	영국 파운드	0.8	(0.5)	(0.6)	(1.4)	1.0	4.0
	유로존 유로	0.9	(0.7)	(1.4)	(2.6)	0.2	0.0
	일본 엔	147.7	(0.8)	(1.2)	(4.0)	(5.1)	(11.2)
	호주 달러	1.6	(1.3)	(1.6)	(2.9)	(4.1)	(6.4)
	홍콩 달러	7.8	(0.1)	0.1	(0.4)	0.0	(0.5)
신흥	중국 위안	7.3	(0.4)	(0.3)	(1.8)	(2.3)	(5.5)
(/ \$)	한국 원	1,330.7	(0.8)	(0.7)	(1.6)	(2.0)	(4.9)
	인도 루피	83.0	(0.3)	(0.4)	(0.2)	(0.6)	(0.4)
	인도네시아 루피아	15,265.0	(0.2)	(0.0)	(0.6)	(2.5)	2.0
	태국 바트	35.5	(0.7)	(0.9)	(1.9)	(2.1)	(2.4)
	말레이시아 링깃	4.7	(0.2)	(0.4)	(2.4)	(1.5)	(5.6)
	필리핀 페소	56.8	(0.3)	(0.1)	(1.9)	(1.3)	(1.9)
	터키 리라	26.8	(0.1)	(0.7)	0.7	(13.2)	(30.2)
	폴란드 즈워티	4.2	(1.2)	(2.0)	(3.9)	0.1	4.4
	헝가리 포린트	361.5	(2.0)	(3.1)	(2.1)	(4.7)	3.3
	멕시코 페소	17.4	(1.4)	(3.6)	(1.9)	(0.3)	12.0
	브라질 헤알	5.0	(0.7)	(2.3)	(1.9)	(0.9)	6.2
	콜롬비아 페소	4,084.0	(0.8)	0.4	(0.5)	3.1	18.8
	아르헨티나 페소	350.0	0.0	(0.0)	(20.2)	(30.4)	(49.4)
	남아공 란트	19.2	(0.7)	(3.8)	(3.9)	(0.6)	(11.3)
	원 / 위안	182.2					
	원 / 엔	9.0					
	원 / 유로	1,430.9					

업종	단위	종가	1D	1W	1M	3M	YTD	
에너지	WTI	\$/bbl	86.7	-	6.8	5.4	20.3	10.7
	Brent유	\$/bbl	90.0	1.2	6.0	5.0	18.3	9.7
	두바이유	\$/bbl	90.5	(0.0)	5.4	4.1	20.1	15.0
	휘발유	\$/gal	258.1	-	1.0	1.4	14.4	10.8
	경유	\$/MT	951.8	3.1	2.3	6.8	36.2	18.9
	난방유	\$/gal	322.0	-	1.5	6.0	33.9	12.3
	천연가스	\$/MMBtu	2.6	-	(3.0)	(3.7)	0.3	(38.1)
	석탄	\$/MT	166.4	4.3	2.9	14.7	10.6	(42.1)
금속	금	\$/t oz.	1,952.6	-	(0.6)	(1.2)	(2.2)	2.4
	은	\$/t oz.	23.9	-	(5.0)	(0.9)	(0.8)	(4.1)
	백금	\$/t oz.	933.5	-	(5.3)	0.5	9.4	(14.4)
	철광석	\$/MT	115.0	0.3	4.3	14.9	13.1	3.9
	구리	\$/lb.	384.9	-	0.2	(1.2)	1.9	1.0
곡물	옥수수	\$/bu.	486.0	-	(0.2)	(2.3)	(8.4)	(20.4)
	소맥	\$/bu.	599.3	-	(0.2)	(9.2)	(7.2)	(26.9)
	대두	\$/bu.	1,365.0	-	(2.0)	2.4	15.8	(3.7)
	현미	\$/cwt.	16.8	-	0.7	4.1	9.3	0.4
기타	커피	\$/lb.	153.5	-	0.2	(4.7)	(14.3)	(7.5)
	설탕	\$/lb.	26.7	-	4.7	12.5	9.9	49.6
	월연	\$/lb.	88.8	-	2.2	5.3	9.3	9.7
	코카아	\$/MT	3,649.0	-	1.7	4.3	18.3	42.8
	고무	JPY/kg	232.0	1.2	9.3	17.6	8.4	-
	목재	\$/1,000BF	-	-	-	-	-	-
	팜유	MYR/MT	3,901.0	(2.1)	(0.7)	0.5	17.0	(3.0)
오렌지주스	\$/lb.	313.2	-	(1.9)	8.9	28.8	70.1	
DRAM Spot	\$	0.9	(1.1)	(2.1)	(3.1)	66.0	(36.1)	

국가	종목명	증가	1D	1W	1M	3M	YTD
총시	VIX	14.0	0.2	(0.4)	(3.1)	0.1	(7.7)
변동성	VSTOXX	16.4	(0.3)	(0.4)	(2.0)	1.0	(4.5)
(pt)	VKOSPI	12.4	(0.1)	(1.1)	(3.1)	(1.3)	(6.0)
단기	SOFR 금리	5.3		(0.3)	1.0	19.6	97.0
자금시장	HIBOR 1M 금리	4.0	34.5	27.6	(122.9)	(17.0)	(31.6)
(%, bp)	SHIBOR 1M 금리	1.9	0.0	3.1	(9.3)	(13.8)	(43.5)
크레딧	미국 하이일드(HY) 스프레드	430.9		7.9	(4.8)	(18.6)	(53.1)
리스크	미국 HY IT 스프레드	490.4	10.8	5.3	(17.8)	(79.1)	(32.8)
(bp)	미국 HY 경기소비 스프레드	355.7	(2.5)	(8.2)	(14.5)	(45.2)	(12.9)
	미국 투자적격(IG) 스프레드	64.3		1.6	(3.9)	(7.8)	(17.7)
	미국 IG 금융채 후순위 스프레드	200.5	1.7	3.8	5.3	(15.1)	3.4
	미국 IG 통신 스프레드	179.3	2.1	4.2	(0.8)	(14.9)	(20.7)
	유럽 하이일드(HY) 스프레드	449.0	(2.0)	(4.0)	4.0	(17.0)	(63.0)
신용국	Barclays EM FX Risk Index	7.04		0.03	(0.04)	(0.02)	(0.17)
리스크							
(bp, pt)							

국제 10년 금리: 미국 vs 독일

(%p) — 미국-독일 금리차 (좌) (%)

연도	미국 10년 금리 (%)	독일 10년 금리 (%)	미국-독일 금리차 (%p)
'22	2.3	1.5	0.8
'23	2.4	1.8	0.6
'24	2.3	1.6	0.7
'25	2.4	1.5	0.9
'26	2.5	1.4	1.1
'27	2.4	1.5	0.9
'28	2.5	1.6	0.9
'29	2.6	1.8	0.8

Year	중국 (좌) (%)	한국 (우) (%)
2009	2.6	3.8
2010	2.7	4.2
2011	2.8	4.5
2012	2.7	4.0
2013	2.7	3.8
2014	2.6	3.5
2015	2.6	3.2
2016	2.5	3.0
2017	2.5	3.0
2018	2.5	3.0
2019	2.5	3.0

Figure 1 is a line chart comparing the Oil Price Index (left axis, inverted scale) and WTI prices (right axis, \$/bbl) from 2009 to 2019. The Oil Price Index (black line) shows a general upward trend from 2009 to 2011, peaking around 102, followed by a decline and then a recovery. WTI prices (red line) show a similar pattern, peaking around \$90 in 2011 and then declining to around \$60 in 2015 before recovering.

Legend: SOFR 금리 (Red line), HIBOR 1M 금리 (Black line)

Year	SOFR 금리 (%)	HIBOR 1M 금리 (%)
2017	~2.5	~2.0
2018	~3.5	~3.0
2019	~4.0	~3.5
2020	~4.5	~4.0
2021	~4.5	~3.0
2022	~5.5	~5.0

Figure 1: US IT and HY spreads (2022.9 ~ 2023.9)

Year	US IT Spread (bps)	US HY Spread (bps)
2022.9	500	450
2022.11	550	500
2023.1	520	480
2023.3	500	420
2023.5	600	480
2023.7	500	450
2023.9	480	420

-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총괄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총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출된 사설이 아닙니다.
-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 총괄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우+ /-15%~15% → 중립 /-15%미만 → 매우-